

이음절 형용사보어 문장에서의 의미지향*

尹 舒 姬**

<目次>

I. 서론	3. 指N受類
II. 이음절 형용사보어의 의미지향	4. 指V類
1. 指N施類	5. 기타 의미지향
2. 指N當事類	III. 결론

I. 서론

보어가 한국학생의 한어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어려운 내용이다. 그 이유는 우선 動補술어문의 사용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는 형용사, 명사, 주술구가 술어를 충당하는 구문보다 출연빈도가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把’字구문, 被자구문, 是자구문, 有자구문, 비교문, 연동문, 겹어문 등 동사성술어문보다도 더 자주 출현한다.¹⁾ 그리고 우리말과 중국어가 보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1-A00105).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趙淑華 등은 <關於北京語言學院現代漢語精讀教材主課文句型統計結果報告>(《語言教學與研究》 1995年2期)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北京語言學院現代漢語精讀教材(初級、中級、高級)의 각 본문에서 각종 유형의 補語구문의 총수는 3,882문장으로 단문 총수의 13.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의 출현 빈도는 형용사, 명사, 주술구가 술어를 충당하는 구문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把자구문, 被’자구문, 是자구문, 有자구문, 비교구문, 연동문, 겹어문 등 각종 특수 동사술어구문보다도 많다.(예를 들면, 형용사술어문은 단문 총수의 5.07%, 把자

어에 있어서의 구성 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보어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성분이다.

현대 중국어에는 동사나 혹은 형용사 뒤에 구조조사 ‘得’을 동반하여 보어를 도입하는 형태의 구문이 존재한다. “得”자 뒤의 성분이 형용사, 동사, 대명사, 주술구, 주술술어구, 부사등이 충당할 수 있다.

- | | |
|------------------------|-------------------------|
| ① 他打掃得 <u>很乾淨</u> 。 | 그는 깨끗하게 청소하였다. |
| ② 他氣得 <u>哭了</u> 。 | 그는 화가 나서 울었다. |
| ③ 你考試準備得 <u>怎麼樣了</u> ? | 시험준비는 잘 돼가? |
| ④ 他跑得 <u>全身是汗</u> 。 | 그는 달려서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
| ⑤ 風吹得 <u>我眼睛都紅了</u> 。 | 바람이 불어 나의 눈이 다 빨갱게 되었다. |
| ⑥ 這個孩子聰明得 <u>很</u> 。 | 이 아이는 아주 총명하다. |

예①의 형용사 “乾淨”은 보어를 충당하여 술어동사 “打掃”가 실행한 후의 상태를 설명한다. 예②의 보어는 동사가 충당하여 술어인 심리동사 “氣(화가나다)”로 인한 결과를 묘사하고 있다. 예③의 보어인 의문대명사 “怎麼樣”은 술어동사 “準備”의 상태를 묻고 있다. 예④에서 주술구 “全身是汗”은 보어를 충당하여 동사 “跑”로 인해 일어난 결과를 묘사하고 있다. 예⑤의 보어는 주술술어문으로 예⑤와 마찬가지로 “風吹”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으나 전자와 다른 동사 “吹”와 受事“我”사이의 사역관계가 있으므로 보어가 설명한 결과는 동작 “吹”의 영향으로 수사 “我”에서 일어난 일이다. 예⑥은 앞에 다섯 개의 예문과 달리 ‘得’자 앞에 형용사술어문으로 부사인 보어 “很”은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본고의 연구대상은 예①과 같이 動詞性술어 뒤에 구조조사 ‘得’을 동반

구문은 0.488%, 是자구문은 0.638%, 被자구문은 7.46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在北京語言學院現代漢語精讀教材(初級、中級、高級)主課文中, 各類補語句的總數為3882句, 占單句總數的13.245%, 其出現頻率不僅高于形容詞、名詞、主謂詞組做謂語的句子, 而且高于把字句、被字句、是字句、有字句、比字句、連動句、兼語句等各種特殊的動詞謂語句(如形容詞謂語句占單句總數的5.07%, 把字句占0.488%, 是字句占0.638%, 被字句占7.462%.”)

하여 형용사보어를 도입하는 형태의 ‘V+得+형’구문이다. 이와 같은 구문은 주어, 동사술어, 得, 형용사상태보어 등 몇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보어를 충당할 수 있는 형용사는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이음절형용사로 제한하되 이러한 이음절 형용사들이 보어를 충당할 때 기타부가성분(예를 들면 부사 “很、非常、十分”)의 존재는 제한하지 않으며 별도로 논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V+得+형’구문의 의미구조에 대한 분석과 형용사보어의 의미지향분석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유형별 의미지향을 가진 형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특징을 찾아내고 이러한 특징이 의미지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고자 한다. 본고에 사용된 이음절형용사는 『形容詞用法詞典』(鄭懷德·孟慶海編 湖南出版社)에서 선출된 것이며 관련예문들은 北京大學中國語語言學研究中心의 CCL語料庫에서의 해당예문의 검색결과를 참조한 것이다.

II. 이음절 형용사보어의 의미지향

의미지향은 통사구조 중에서 어떤 한 성분이 다른 한 성분 혹은 몇 개의 성분과 의미적으로 연관되는 것을 가리킨다. 통사구조 중에서 어떤 한 성분의 의미지향을 통하여 문법현상을 설명하는 통사분석방법을 의미지향 분석법이라 한다. 우리는 의미지향 분석을 통하여 문장의 의미구조를 보다 깊게 연구할 수 있다. 중국어에서 보어, 부사어, 한정어, 술어동사에 의미지향의 문제가 있다. 특히 동보구조의 의미관계와 비직접성분 간의 의미관계 연구에 의미지향 분석은 유용한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의미지향 분석은 통사구조와 의미구조의 대응관계가 복잡한 중국어에서 그 두 구조간의 대응관계를 찾는 데도 유용한 분석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²⁾

아직까지 “得”字 構文의 의미지향과 의미구조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李臨定(1963)은 보어가 동사를 설명하는 경우, 주어를 설명

2) 陳昌來(2002:94) 참조.

하는 경우, 목적어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고, 范曉(1992)와 張豫峰(2001, 2002)은 주로 어휘와 어휘 사이의 의미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미지향 대상을 확정하였다. 范曉는 여섯 종류의 의미지향 대상을 분석하였는데 이들은 각각 술어 또는 동작의 주체, 동작의 객체, 주체의 일부분 또는 전체, 객체의 일부분 또는 전체였다. 張豫峰은 크게 아홉 종류로 분류된 의미지향 대상을 분석하였는데 어휘와 어휘사이의 의미관계에 대해 더욱 세밀한 분석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형용사상태보어는 술어하고만 의미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어, 빈어 등 성분들과도 의미상의 관계를 갖는다.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① 他衣服洗得 <u>很乾淨</u> 。 | 그는 옷을 아주 깨끗하게 빨았다. |
| ② 他衣服洗得 <u>很快</u> 。 | 그는 옷을 아주 빨리 빨았다. |
| ③ 他洗衣服洗得 <u>很累</u> 。 | 그는 빨래하느라 피곤해졌다. |

위에 어법구조가 거의 똑 같은 세 문장사이에 미세한 의미적인 차이가 있다. 층차분석이나 意味格분석만을 통해서 이들 구분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의미지향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 사이에 존재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같은 형용사보어지만 예①에서 보어 “乾淨”은 수사인 “衣服”을 지향하고 예②에서 보어 “很快”는 동사 “洗”를 지향하며 예③에서 보어 “很累”는 시사주어인 “他”를 지향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세 문장은 모두 “他洗衣服”라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발생한 결과를 설명하는 보어의 의미지향은 동일하지 않으며 각각 “衣服很乾淨”, “洗得很快”, “他很累”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得”자보어에 대해 의미지향분석을 진행할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음절 형용사보어가 문장에서의 의미지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를 통하여 보어와 문장성분들과의 의미구조관계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陸儉明·沈陽선생님은 의미지향분석은 실제 ‘동일한 통사구조 관계’에서 ‘서로 다른 의미구조관계’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한바가 있었

다.3) 따라서 본문은 형용사보어가 지향하는 의미성분에 따라 보어를 指N施類, 指N當事類, 指N受類, 指V類, 指N屬事類, 指N工具類, 指N處所類로 나누어 보어와 함께 출현한 성분들과의 의미관계를 분석해 나갈 것이다.

1. 指N施類

指N施類 상태보어는 대부분 술어동사의 작용으로 발생한 결과를 나타내며 주어에 대한 평가 또는 묘사이기도하다. 똑같이 시사를 지향하지만 내부 상황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④ 他看得很認真。 그는 무척 열심히 보고 있다.
 ⑤ 她們聊得很高興。
 그녀들은 수다를 떨다보니 즐거워졌다.(그녀들은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다.)

예④의 보어 “認真”의 의미지향은 시사주어인 “他”로 시사의 동작을 수반하는 태도를 묘사하고 있다. 즉 “他很認真”;⁴⁾ 예⑤의 시사 “她們”은 “聊”라는 행위의 주체이고보어 “高興”은 시사주어를 지향하여 상태를 묘사한다. 하지만 예④와 달리 보어가 표시한 시사의 상태는 동작과의 의미관계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이야기하기(聊)’ 때문에 ‘즐거워다(高興)’라는 의미, 즉 “因V而C”의 의미구조이다. 또 하나는 “즐거운(高興)” 마음으로 “이야기하다(聊)”, 즉 “高興地聊”라는 의미를 담을 수도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동작의 결과상태일 수도 있고 동작의 수반상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지 모두 시사주어를 지향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指N施類 보어를 다시 수반상태類, 결과상태類로 나누어본다.

3) 陸儉明·沈陽, 《漢語和漢語研究十五講》, 北京大學出版社, 2004, p.252.

4) 많은 학자들은 이와 같은 態度類형용사가 충당한 보어를 施事와 動詞를 지향하는 이중지향유형으로 분석하고 있다.

(1) 수반상태를 설명하는 指N施類보어

시사를 지향하며 시사의 동작수반상태를 묘사하는 보어를 충당하는 형용사는 주로 사람의 태도와 의지를 나타내는 형용사고 동사는 及物動詞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⑥ 服務員招待得十分殷勤。

종업원은 정성을 드려 초대했다.

⑦ 隊員們上半場球打得很謹慎。

선수들은 전반전 경기를 아주 신중하게 쳤다.

⑧ 這件事領導處理得很果斷。

이일은 상사가 아주 단호하게 처리했다.

⑨ 同事們結論下得太輕率了。

동료들은 너무 경솔하게 결론을 내렸다.

예⑥의 보어“殷勤”은 “招待”라는 행위가 끝난 뒤에 일어난 결과 아니고 이런 행위를 수반하는 시사인 주체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예⑦의 보어“謹慎”도 동작 “打”를 수반하는 “隊員們”의 태도다. 실제 동작주체는 동작을 실행하기 전에 이미 “謹慎”의 태도를 취했을 수도 있다. 다만 화자의 시점이 동작이 완료된 후에 평가했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남은 두 예문의 보어 “果斷”、“輕率”도 모두 동작 “處理”, “下”를 수반하고 있는 태도로서 결코 동작의 발생에 따라 일어난 상태가 아니며 동작과는 원인·결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유형에 속한 상태보어들은 전부 상어위치로 이동시켜 상어구문으로 변환할 수 있다. (변환 후 일부 성분의 추가 또는 생략에 대해 잠시 논하지 않기로 한다.)

服務員招待得十分殷勤。 → 服務員(十分)殷勤地招待著。

隊員們上半場球打得很謹慎。 → 隊員們(很)謹慎地打了上半場。

這件事領導處理得很果斷。 → 領導(很)果斷地處理了這件事。

가장 많이 이런 보어를 충당할 수 있는 형용사는 주로 사람의 태도와 관련된 형용사들이다. 태도는 주체인 사람이 사람 또는 사물을 접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동작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러한 태도를 나름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어를 충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⁵⁾

悲觀、誠懇、誠摯、大方、公平、負責、果斷、和藹、和氣、積極、堅定、
堅決、謹慎、刻薄、樂觀、冷淡、冷漠、親切、親熱、勤奮、熱情、熱心、
仁慈、隨便、委婉、嚴厲、嚴肅、殷勤、友好、真誠、殷勤、友好、真誠、
鎮靜、樂觀、勉強、強硬、輕率、認真、散漫、慎重、消極、虛心、主動、
莊重

이외에 의지를 묘사하는 형용사도 있다.

脆弱、剛強、堅強、松懈、頹喪、頑強、消沈、勇敢、懦弱、窩囊²⁾

극히 적은 수량의 성격을 묘사하는 형용사도 동작을 수반하는 상태보어를 충당할 수 있으나 주로 언행관련 동사와 함께 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回答得很爽快”, “笑得那樣爽朗”, “笑得豪放”, “愛得溫柔” 등이 있다.

(2) 결과상태를 설명하는 指N施類보어

보어를 충당하여 결과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는 주로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형용사다. 이런 유형의 보어는 시사가 동작 VP를 실행하거나 동작VP를 일정한 정도로 지속했을 때 나타난 상태를 가리키며 동작VP는 반

5) 본 논문에 열거된 이음절형용사는 《形容詞用法詞典》에 수록된 형용사를 참고한 것이며 관련예문은 스스로 지은 예문 또는 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 語料庫를 참고 또는 인용한 것이다.

6) 《形容詞用法辭典》(鄭懷德·孟慶海)에서는 “窩囊”에 대해 두 가지의미로 해석되어있다. 窩囊1: 因受委屈而煩悶. 窩囊2: 無能, 怯懦.

드시 시사자체에서 실행한 것이다, 즉 동사는 自主動詞여야 한다. 따라서 보이는 시사를 지향하며 본고에서 결과상태류로 부르는 이유는 보어가 설명한 상태는 동사 VP가 일으키거나 동사의 작용하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한 언어 환경이 없이는 이러한 ‘得’자 구문은 중의(重義)현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보어가 설명한 감정·정서 또는 주체의 상태는 동사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적인 상태일 수도 있지만 동작 V를 수반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⑩ 他聽這故事聽得很難過。

- a.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이 괴로워했다.
- b. 그는 그 이야기를 괴로워하며 들었다.

⑪ 他一個人在宿舍呆得煩悶。

- a. 그는 혼자 기숙사에 있었는데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 b. 그는 혼자 기숙사에 답답해하며 있었다.

例⑩의 보어 “悲傷”은 행위의 주체인 “姑娘” “哭”이라는 행위를 지속했으므로 발생한 감정이자 “哭”이라는 행위를 수반한 감정이기도 한다. 예⑪의 보어 “煩悶”의 시사는 “혼자 지내다(一個人呆)”라는 행위 때문에 “煩悶”의 기분이 날 수도 있고 “煩悶”의 기분으로 “혼자 지내다(一個人呆)”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보어구문은 이러한 다의의 의미특징이 있기 때문에 보어를 상어위치에 이동할 수도 있다. 물론 각 예문의 b번역문과 같은 의미를 지닐 때 이러한 구문변환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那個姑娘伏在墳上哭得很悲傷。 → 那個姑娘伏在墳上悲傷地哭着。
他一個人在宿舍呆得煩悶。 → 他一個人在宿舍煩悶地呆着。

하지만 보어가 重動句⁷⁾에서 출현했을 때 다의(歧義)가 사라지고 보이는

7) 重動句란 보어가 들어있는 문장에서 동일한 동사가 두 번 출현하여 “V+N+V+得+C”형 문장을 말한다. (이하예문 참조)

원래 동작의 결과상태만 설명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⑫ 她聽這故事聽得疲倦了。
그녀는 이야기를 너무 듣다가 지쳐졌다.
- ⑬ 他想夫人想得憔悴。
그는 부인이 너무 그리워서 초췌해졌다.
- ⑭ 他曬太陽曬得黝黑。
그는 햇볕을 너무 쬐서 (피부)거무잡잡해졌다.

예⑫는 重動句(“聽這故事聽得”)이다. 동사 “聽”과 “疲倦”은 자연적인 원인결과관계가 아니고 구체적인 언어 환경에서 비로소 연결된 것이며 빈어를 강조함으로써 重動句가 되었다. (형용사가 重動句에서 보어를 충당하는 상황은 다른 장절에서 다시 논의할 것임). 보어 “疲倦”은 동사 “聽”이 일으킨 시사의 결과 상태이다. 만약 보어를 상어위치로 이동시켜 예⑫를 “她疲倦地聽着這故事”로 고치면 원래의미가 변화 생긴다. 이어진 뒤 세 예문의 보어 “憔悴”, “黝黑”은 각각 행위 “생각하다(想)”, “햇볕을 쬐다(曬)”가 가져온 결과적인 상태이며 수반한 상태는 절대 아니다. 이외에 “黝黑”과 유사한 외모관련 형용사들도 이러한 重動句에서 시사를 지향하는 결과보어를 충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며, “她減肥減得非常苗條”, 하지만 아주 극소수다.

이 밖에 문장 중에 동작의 완료 또는 중단됨을 나타내는 의미요소가 있을 때도, 보어는 동작의 완료에 따라 발생한 시사의 결과적인 상태를 설명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⑮ 她說得激動, 忽然哭了起來。
그녀는 이야기하다가 너무 감격스러워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 ⑯ 她坐得舒服些, 然後開始閱讀那幾頁紙。
그녀는 좀 편안하게 앉고 나서 비로소 그 몇 쪽의 종이를 읽기 시작했다.

예⑮은 두 개의 절로 구성되었으며 일정한 언어 환경을 갖추었다. VP₂ (“哭”)는 행위 VP₁(說) “감격스러워(激動)”하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어 “激動”은 VP₁(說)의 결과 상태이다. 예⑯에서 이런 형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뒤에 이어진 구절에 “開始”는 VP₂(閱讀)의 시작은 VP₁(“坐”)가 “좀 편안해지다(舒服一些)”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이며 여기에서 보어 “舒服”은 동작 “坐”의 결과상태임은 틀림없다. 이런 유형의 보어를 충당하는 형용사는 감정이나 느낌, 또는 주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인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高興、歡暢、歡快、歡樂、歡喜、積極、激動、開心、快活、快樂、輕鬆、
 舒暢、恬蜜、興奮、真摯、自豪、自在、悲傷、悲痛、慚愧、沈痛、煩悶、
 煩躁、浮躁、孤獨、慌張、惶恐、灰心、驚奇、驚訝、急迫、急躁、寂寞、
 焦急、緊張、恐慌、苦悶、難過、難受、氣憤、憂傷、憂郁、著急、緊張、
 糊塗、難受、疲勞、疲倦、疲乏、平安、舒服、無聊、苗條、憔悴

보어를 충당하여 N施事를 지향하는 형용사들은 N施事の 수반상태를 설명하거나 결과상태를 설명하거나 전부 사람과 관련되며 [+述人]의 의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指N當事類

當事는 사건에서 비자발적인 행위와 상태의 주체를 가르킨다.⁸⁾ 이는 또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1) 當事가 사람인 경우

우선 사람의 외모특징을 묘사하는 형용사들이 보어를 충당 할 때 전부 當事주어를 지향한다. 이들은 보어를 충당할 때 통상적으로 “生”、“長”、

8) 《現代漢語動詞大詞典》 使用說明 참조.

“出落”와 같은 동사뒤에 출현하며 동사와 當事사이에는 使役관계가 거의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⑰ 女兒們個個出落得相當漂亮。

딸들은 하나같이 예쁘게 생겼다.

⑱ 梅桃長得瘦弱，老孔的老婆生得粗壯。

매도는 마르게 생겼고 노공의 마누라는 튼튼하게 생겼다.

예⑰의 보어 “相當漂亮”과 동사 “出落”은 원인·결과의 관계가 아니며 當事주어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문장전체는 “딸들은 아주 예쁘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예⑱에서 병렬관계의 두 문장의 보어 “瘦弱”과 “粗壯”은 “長”과 “生”의 결과적인 상태는 아니고 當事의 외부특징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동사와의 사이에 실제 아무 의미연결도 없다. 이런 유형인 보어를 충당하는 형용사는 대표적으로 사람의 외모를 묘사하는 것으로 의미상으로 [+述人]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주로 “矮小、單薄₂、高大、好看、健壯、結實₂、魁梧、美麗、苗條、難看、年輕、漂亮、強壯、弱小、衰老、瘦弱、瘦小、穩健、秀麗、英俊” 등이 있다.

사람의 외모를 묘사하는 형용사만이 보어를 충당하여 當事주어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본고는 “生”、“長”、“出落”과 같은 동사들은 뒤에 수반하는 형용사보어에 대한 제약은 그리 엄격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사람의 성격, 의지, 지혜, 인품 등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는 형용사도 보어를 충당하여 사람인 當事주어를 지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聯合詞組의 형식을 많이 취하여 ‘得’자 보어를 충당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⑲ 三兄弟都長得強壯而勇敢。

삼형제모두 건강하고 용감하게 생겼다.

⑳ 馬宏岩的兒子長得很聰明可愛。

마홍암의 아들은 총명하고 귀엽게 생겼다.

예⑱의 보어 “건장하고 용감함(強壯而勇敢)”은 외모를 묘사하는 형용사와 의지를 묘사하는 형용사로 함께 묶여져 當事주어인 “三兄弟”의 두가지 특징을 설명한다. 예⑳의 보어 “매우 총명하고 사랑스럽다(很聰明可愛)”는 각각 지혜와 외모를 묘사하는 형용사가 묶여진 보어다. 외모적인 특징을 묘사하는 형용사나 성격·의지·지혜 등을 묘사하는 형용사든지 모두 當事의 고유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문에서 최고 많이 출현하는 “長”類동사는 이미 허화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어를 상어위치로 이동시켜 문장변환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三兄弟都長得強壯而勇敢。 → * 三兄弟都強壯而勇敢地長。

이상의 분석을 통해 형용사는 보어를 충당하여 N_{當事}를 지향할 수도 있으며 當事가 사람인 경우 보어형용사도 [+述人]의 의미특징이 있다. 이어서 當事가 사물인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2) N_{當事}가 사물인 경우

사물의 외형·색상 등 외부특징을 그리는 개별의 형용사는 보어를 충당하여 當事주어를 지향할 수 있다. 사람인 N_{當事}를 지향하는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보어를 충당할 때 대부분 “生”、“長”、“開”類、동사 뒤에 출현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㉑ 花開得格外鮮豔。

꽃은 유난히 화려하다.

㉒ 樹木長得特別茂盛。

나무는 무성하게 자랐다.

이와 같은 형용사는 많지 않으며 주로 “筆直、笨重₁、美麗、燦爛、茂密、茂盛、粗大、肥大、高大、滾圓、尖銳₁、銳利₁、直溜、茁壯”과 같은

형용사들이다. 當事가 사물인 경우, 當事를 의미지향하는 보어형용사도 [+述物]의 의미특징이 있다.

3. 指N受類

이상의 분석을 통해 施事지향 또는 當事지향을 하는 보어를 충당할 수 있는 형용사가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어를 충당했을 때 함께 출현할 수 있는 동사에 대한 선택도 자유롭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受事를 지향하는 형용사보어를 분석할 것이다. 따라서 受事が 사람인 경우와 受事が 사물인 경우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1) N受는 사람인 경우

동사가 “裝扮”、“打扮”、“磨練”류이고 구문이 주로 ‘把’자 구문이나 ‘被’자 구문일 경우 보어는 시사를 지향하며 施事의 결과 상태를 설명한다.

㉓ 他身體鍛煉得十分健壯。

그는 몸을 매우 튼튼하게 다졌다.

㉔ 這几年我把自己鍛煉得更堅強, 更勇敢。

몇 년 간 나는 자신을 더 강하고 더 용감한 사람으로 단련시켰다.

㉕ 她雖裝扮得漂亮, 卻少有魅力獨具的感覺。

그녀는 예쁘게 단장했지만 자신만이 지니고 있는 매력은 부족하다.

위와 같은 유사한 동사는 또한 “折磨”、“折騰”、“逼”、“逼迫” 등이 있다. 보어를 충당하여 受事를 지향하는 이음절 형용사는 주로 사람의 의지, 지혜, 외모, 체질과 관련되는 형용사이다. 따라서 [+人]受事를 지향하는 보어를 충당하는 형용사는 비교적 제한을 받지 않지만 앞에 오는 동사는 극소수만이 조건을 충족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며 [+述人]의 의미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2) N受는 사물인 경우

이때의 보어는 受事가 동작의 영향을 받고 이르는 결과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 상태는 동작으로부터 직접적인 작용을 가하여 만들어낸 使成狀態이다. 사물은 다시 구체적인 사물과 추상적인 사물로 나눌 수 있다.

① 受事が 구체적인 사물인 경우

동작VP와 受事の 관계가 에 따라 다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受事が 동작 VP의 “제품”이고 하나는 受事が 동작VP의 “제품”이 아닌 경우이다.

A. 受事が 동작VP의 “製品”이다

VP와 受事사이에 “製作”과 “제품”의 관계일 경우, 전형적인 형용사보어가 受事を 지향하는 경우이다. 이때 보어는 受事인 “제품”의 특징이나 속성을 묘사한다. 鄭鄭貴友(2000)는 “動賓雙係的形容詞狀語”를 분석할 때 製作類문장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었다.

② 江敏方方正正地打了一个背包。

강민은 짐을 네모반듯하게 썼다.

鄭은 빈어인 “背包”는 VP인 제작행위의 “製作결과”또는 “製品”이라고 하며 VP동사와 빈어의 관계가 전체 문장에게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였다.⁹⁾ 만약 이 예문의 상어인 “方方正正”을 보어위치로 이동시켜, 즉 “(江敏把)背包打得方方正正”으로 변환하면, 受事인 “背包”와 “打”의 “製作→製品”관계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양자의 이런 특별한 관계는 보어가 受事の 결과 상태를 지향하는 ‘得’자구를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9) 鄭貴友, 《現代漢語狀位形容詞的『系』研究》, 華中師範大學出版社, 2000, p.78.

鄭貴友선생님 수집한 VP와 O의 관련 데이터를 통해 적지 않은 형용사들이 “O製品+VP制作得+A”형식 구문의 보어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㉗ 粥熬得稀爛。
죽을 흐물흐물하게 끓였다.
- ㉘ 麵包烤得焦黃。
빵은 누르스름하게 굽혔다.
- ㉙ 鋼條軋得筆直。
철봉은 똑바르게 압연되었다.
- ㉚ 饅頭蒸得松軟。
김빵은 말랑말랑하게 쪄졌다.

위 예문에서 受事 “粥”, “麵包”, “鋼條”, “饅頭”는 각각 “熬”, “烤”, “軋”, “蒸”과는 “製作→제품”의 관계이며 ‘得’자 뒤의 형용사보어는 완성된 제품의 특징 또는 상태를 설명한다. 따라서 위에 예문중의 보어는 동사 앞으로 이동시켜 상어를 충당할 수는 없다.

B. 受事が 動作VP의 “製品”이 아니다

受事O는 동작VP 만들어낸 “製品”은 아니지만 동작VP와는 使役과계이다. 동작 VP는 受事인 물체에게 작용을 가하고 형용사보어는 결과의 상태를 설명한다. 물체상태를 묘사하는 “粉碎”類형용사, 물체청결정도를 나타내는 “乾淨”類형용사, 물체의 표면상태를 나타내는 “溜光”類類 등 형용사들이 주로 이런 受事を 지향하며 결과 상태를 묘사하는 보어를 충당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㉛ 他把手中的信撕得粉碎。
그는 수중의 편지를 산산조각으로 찢어버렸다.

② 房間收拾得很乾淨。

방은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어있다.

③ 襯衫洗得更加白淨。

외이셔츠는 더욱 하얗게 빨았다.

두 종류의 구문을 비교하면 受事가 동작의 “製品”인 구문에서 受事O는 “無”에서 “有”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문장에 들어 갈 수 있는 동사에 대한 제약은 엄격하다, 즉 “製作”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제작의 대상도 반드시 受事여야 한다. 이때 보어가 설명한 상태가 일단 형성되면 고정화됨으로 受事の屬性에 가까워진다. 하지만 두 번째 구문(受事가 동작의 “製品”이 아닐 경우)에서는 동사에 대한 제약은 그다지 엄격하지 않으며 受事와 使役관계가 되면 된다. 보어가 나타낸 상태는 된다.

受事が VP의 “製品”이든지 아닌지 두 유형의 보어는 모두 동작의 使役으로 발생한 특징 또는 상태이기 때문에 受事を 지향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물인 受事を 지향하는 보어를 충당할 수 있는 형용사들을 주로 물체의 외형, 온도, 경도, 표면, 상태등 사람의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으로 감지(感知)할 수 있는 특징을 묘사하는 형용사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筆直、冰涼、燦爛、高大、工整、光滑、嬌嫩、冷清、凌亂、零星、零散、
明亮、明媚、暖和、平穩、平安、破碎、磅礴、漆黑、柔和、柔軟、雄偉、
松軟、松散、紊亂、溫暖、紊亂、鮮艷、鮮明²、悠揚、黝黑、整潔、整齊、
壯觀、壯麗、工整、簡陋、簡潔、分明、晦澀、枯燥、濃郁、結實、簡短、
精緻、均勻、牢靠、牢固、零散、零碎、零星、凌亂、茂密、明顯、蓬鬆、
松散、盛大、雅致、勻稱、稀疏、顯眼、醒目、整齊、整潔

이상의 형용사들은 [+述物]의 의미특징을 지니고 있다.

(3) 受事が 추상적인 사물인 경우

이어서 受事が 추상적인 사물인 보어구문을 살펴본다. 추상적인 사물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는 대부분 [+효과조성]의 의미특징을 지닌 동사들과 어울려서 출현한다.¹⁰⁾ 예를 들면 “刻畫、描繪、描述、描寫、襯托、烘托、塑造、渲染、表達、映照、演奏、裝扮、點綴”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형용사보어들은 대체로 장소의 분위기, 기세, 또는 문장의 내용 등을 설명하는 보어이다. 주로 “逼真”、“傳神”、“生硬”、“生動”、“熱烈”、“熱鬧”、“隆重”、“歡樂”、“活躍”과 같은 형용사들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㉔ 它們把這條街的商業氣氛渲染得格外熱鬧。
그들은 이 거리의 상업분위기를 더욱 들끓게 만들었다.
- ㉕ 樂曲演奏得十分莊嚴。
악곡은 매우 장엄하게 연주했다.
- ㉖ 這些作品都把戰後的日本社會描寫得陰暗。
이 작품들은 모두 전후의 일본사회를 어둡게 묘사하였다.

‘得’자 보어구문에서 N受事가 구체적인 사물일 수도 있고 추상적인 사물일 수도 있다. 구체적인 사물인 경우 또한 N受事が 동작의 직접적인 산물일 수도 있고 또는 동작의 산물은 아니나 동작과의 사역관계로 일종 결과적인 상태나 특징을 지닐 수도 있다. 이렇게 N受事の 유형 또는 N受事が 동사와의 관계가 복잡하지만 N受事を 지향하는 보어형용사는 모두 [+述物]의 의미특징을 지니고 있다.

10) 鄭貴友爲分析“動+得+形”結構所表現的認知范疇，對搜集到的860條“動+得+形”結構進行了分組，得到了48小組的結構，之后因嫌其過於繁瑣，對其中若干小組再次進行了歸并，得到了八大組。其中第五大組爲“[描寫]+得+A”，關於可進入這一大組結構中的動詞的特征指出“都具有[產生 / 發出某種信息]的語義特征”，“尤其是‘描寫’、‘演奏’、‘渲染’、‘襯托’這些動詞，本身就含有[造成某種效果]的語義特征”。(見鄭貴友，〈現代漢語狀位形容詞的「系」研究〉，華中師範大學出版社，2000，p.89.)這裏我們更加細致列舉了類似動詞。

4. 指V類

V지향류 보어는 술어동사에 대해 평가 또는 묘사를 한다. 이는 형용사 “得”자보어중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의미구조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㉞ 他走得很倉促。

그는 아주 황급하게 떠났다.

㉟ 他回答得很準確。

그는 아주 정확하게 대답하였다.

㊱ 他操作得很熟練。

그는 아주 능숙하게 작업했다.

동시指向類 보어들은 평판성(評議性)이 강하며 대부분 화자의 주관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 술어동사의 의미제약 때문에 동작의 방식 또는 정도와 관련된 형용사들 만이 보어를 충당할 때 동사 V를 지향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작의 시간·범위·속도·빈도·강도·심도·섬세도·난이도·정확도·섬세도·선명도 등등을 서술하는 형용사들이 있다. 따라서 동사지향류 형용사보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부적인 분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아래에서 각 예문을 통해 동시指向類보어를 충당하는 형용사의 의미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㊲ 她答應盡量活得長久一些。

그녀는 최대한 더 길게 살기를 약속했다.

㊳ 這個詞現在用得很廣泛。

그 어휘는 요즘 광범위하게 쓰인다.

㊴ 他講得很全面。

그는 아주 전면적으로 설명하였다.

㊵ 經濟增長得緩慢。

경제는 느린 속도로 성장한다.

④⑤ 他們接觸得頻繁起來。

그들의 접촉은 잦아지기 시작했다

예④의 보어 “長久”는 행위주체가 “活”이라는 사건을 유지하는 시간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동사‘活’를 지향한다. 예④와 ④③의 “廣泛”과 “全面”은 각각 동작“用”의 범위와 행위 “講”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역시 각각 동사 ‘用’과 ‘講’를 지향한다. 예④④의 “緩慢”은 술어 동사인 “增長”의 속도를 묘사하고 있으며 동사를 지향한다. 동작의 속도를 설명하는 형용사보어는 이외에 “飛速”, 그리고 위급함을 나타내는 “倉促”, “急促”와 같은 형용사들도 있다. 예④⑤의 “頻繁”은 행위 “接觸”의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동사를 지향한다. 이와 같은 형용사는 “稀疏”도 있다. 위에서 동작의 지속시간, 범위, 동작의 속도 또는 빈도와 관련된 형용사들이 보어를 충당하여 동사를 지향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동작의 정도, 즉 강도·심도·섬세도·난이도·정확도·섬세도·선명도 등등과 관련된 형용사들이 충당한 보어들을 예를 들어본다.

④⑥ 飛機震蕩得厲害。

비행기는 심하게 진동하였다.

④⑦ 星子想問題想得很深遠。

성자는 문제를 생각할 때 아주 멀리 내다보고 있다.

④⑧ 我對老莊哲學了解得很膚淺。

나는 노자장자철학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

④⑨ 字寫得很草率。

글씨를 건성으로 썼다.

⑤⑩ 小說對主人公的內心沖突刻劃得十分細膩。

소설은 주인공의 내심충돌에 대해 매우 섬세하게 그렸다.

⑤⑪ 我們的事情辦得很順利。

우리의 일은 아주 순조롭게 처리되었다.

⑤⑫ 要把論點論述得準確一些。

논점을 좀 정확하게 논증해야한다.

⑤③ 他這次談得很含糊。

그는 이번에 아주 모호하게 얘기했다.

⑤④ 意大利隊踢得很穩健。

이탈리아팀은 안정감 있게 경기를 했다.

예④⑥의 형용사보어 “勵害”는 동작 “震動”의 강도를 설명하며 동사를 지향한다. 동작의 강도를 설명하는 형용사들은 이외에 “凌厲”、“強烈¹”、“猛烈”、“激烈”、“凶猛”、“嚴重”、“沉重” 등도 있다. 예④⑦의 보어 “深遠”과 예④⑧의 보어 “膚淺”은 각각 술어동사인 “想”과 “了解”의 심도를 말하고 있으며 전부 동사를 지향한다. 이와 같은 형용사들은 또한 “膚淺”、“深刻”、“深入”、“深遠”、“透徹”、“充分” 등 있다. 예④⑨의 보어 “草率”과 예⑤⑩의 보어 “細膩”는 각각 행위 “寫”와 “刻畫”의 상세여부를 설명하고 있으며 전부 동사를 지향하고 있다. 예를 더 든다면

“扼要”、“草率”、“簡單¹”、“精細”、“具體”、“籠統”、“細膩”、“細致”、“詳盡”、“詳細”、“周密”、“仔細”、“嚴密”과 같은 형용사들이 있다. 행위나 사전은 진행과정에서 순조롭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형용사, 즉 동작 완성의 난이도를 설명하는 형용사들도 동작과 관련된 것으로 보어를 충당할 때 동사를 지향한다. 따라서 예⑤⑪의 보어 “順利”는 동사 “辦”의 난이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동사를 지향한다. 이와 같은 형용사들을 예를 들면 “艱苦”、“艱難”、“艱辛”、“順利”、“巧妙”、“輕快¹”、“輕巧³”、“輕易”、“輕松” 등 있다. 예⑤⑫의 보어 “準確”은 동작 “論術”의 정확도를 설명한다. 이러한 형용사보어들도 동사를 지향한다. 예를 들면 “正確”、“精確”、“精辟”、“精煉” 등이 있다. 예⑤⑬의 보어 “含糊”는 동사 “淡”의 명확도를 설명한 것으로 동사를 지향하는 보어이다. 이와 같은 형용사는 “含蓄”、“分明”、“鮮明”、“清楚” 등도 있다. 예⑤⑭의 보어 “穩健”은 동사 “踢”의 안정도를 설명한 것으로 동사를 지향한다. 이와 같은 형용사들은 “安穩”、“穩固”、“穩定” 등도 있다.

指V類의 보어들은 동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모사하거나 평판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술어동사 앞으로 이동시켜 상어를 충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小男孩睡得十分安穩。 → 小男孩安穩地睡着。
 雙方廝殺得非常凶猛。 → 雙方凶猛地廝殺。
 他們安排得很周到 → 他們周到地安排。

따라서 指V類의 보어 형용사는 동사의 어떤 부분에 대해 묘사 또는 설명하거나 상관없이 모두 [+述行]의 의미특징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상어 위치로 이동한 뒤에도 여전히 V를 지향한다.

5. 기타 의미지향

형용사는 ‘得’자 뒤에서 보어를 충당할 때, 위의 분석과 같이 N施, N當事, N受, V만 지향할 뿐만 아니라, 기타 의미성분을 지향 할 경우도 있다. 간단히 요약해서 분류하면 주로 指N屬事類, 指N處所類, 指N工具類 등이 있다.

(1) 指N屬事類

이런 문장에서는 주어가 보통 施事이며 “한정어+중심어”형태로 한정어는 領事고 중심어가 屬事인 문장이다, 형용사 보어는 N屬事를 지향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⑤ 他的眼睛哭得紅腫。
 그는 울어서 눈이 붉게 부었다.
 ⑥ 他的嗓子喊得嘶啞。
 그는 소리를 질러서 목이 쉬었다.
 ⑦ 他的臉色變得雪白。
 그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다.

위 세 예문에서 형용사보어 “紅腫”, “嘶啞”, “雪白”은 각각 N屬事 “他的眼睛”, “他的嗓子”, “他的臉色”를 지향한다. 술어동사와 보어사이에는 “원인→결과”관계이다. 이와 같은 문장은 대부분 N屬事를 ‘得’자뒤로 이동시켜 보어가 주술구형태를 취한다. 이때 술어동사와 보어사이에는 “원인→결과”관계는 확연히 드러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他的眼睛哭得紅腫。→ 他哭得眼睛紅腫。

他的嗓子喊得嘶啞。→ 他喊得嗓子嘶啞。

他的臉色變得雪白。→ 他變得臉色雪白。

(2) 指N處所類處

⑤8 他們住得挺寬敞。

그들은 널찍하게 산다.

⑤9 碗里的飯吃得很乾淨。

공기에 밥은 깨끗하게 먹었다.

⑥0 樹葉落得精光。

나뭇잎은 남김없이 떨어졌다.

똑같이 보어가 N處所를 지향하지만 예⑤8와 예⑤9의 경우는 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⑤8에서 보어가 동사 “住”의 장소를 지향하지만 문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隱性성분이다. 따라서 문장을 “他們住的地方挺寬敞”으로 바꾸어 隱性성분인 處所를 가시화하면 의미지향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⑤9에서 보어가 처소 “碗”을 지향하고 있으며 “碗很碗很乾淨”의 의미구조를 표현하고 있다. 예⑥0은 예⑤8처럼 보어가 지향하고 있는 處所가 隱性성분인 “樹”이다. 따라서 문장을 “樹上的樹葉落得精光”로 바꾸면 또한 의미지향관계가 두드러진다. 예⑤8의 동사와 처소사이 사역관계가 없이 보어는 처소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지만 예⑤9⑥0에서 동사와 처소는 사역관계가 있으며 보어는 처소의 결과 상태를 설명한다.

(3) 指N工具類

주어가 술어동사의 도구이며 보어는 주어를 의미 지향한다. 즉 N工具를 지향한다. 하지만 N工具를 지향하는 보어를 충당하는 형용사는 주로 단음절 형용사구나 형용사 중첩형이며 이음절 형용사의 경우는 발견하지 못했다.

⑥1 橡皮擦得挺髒的。

지우개는 너무 사용해서 더러워졌다.

⑥2 鉛筆用得短短的。

연필은 너무 많이 사용해서 짧막해졌다.

指N屬事類, 指N處所類, 指N工具類의 보어를 충당하는 형용사들은 전부 [+術物]의 의미특징을 지니고 있다.

III. 결 론

본 논문은 '得'자 뒤의 이음절형용사가 충당한 보어가 문장에서 의미지향을 指N施類, 指N當事類, 指N受類, 指V類, 指N屬事類, 指N工具類, 指N處所類로 분류하여 분석하면서 이러한 의미지향을 제약하는 요소들도 함께 관찰해보았다. 우선 형용사자체의 의미특징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이고 있다. 즉 형용사의 [+述人], [+述物], [+術行]의 의미특징은 자신이 충당한 보어의 의미지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음으로 보어가 명사성성분을 지향하고 있을 때, 동사와 보어지향성분과의 관계 使役인지 아닌지가 보어가 나타내고 있는 상태가 지향대상의 결과 상태인지 아님 수반적인 상태인지 아님 고유상태인지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 즉 형용사보어가 “V+得+C”에서의 의미지향 및 해당 의미지향을 가질 때 보어를 충당하는 형용사의 의미특징, 동사의 의미특징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문장의미구조	동사와 보어지향 성분과의 관계	보어의 의미지향	지향내용	C의 의미특징
N施+V及+C	非使役	指N施	수반상태	[+述人]
N施+V及不及+C	非使役 또는 使役	指N施	결과 또는 수반상태	
N當人+V及+C	非使役	指N當	특징 또는 속성	[+述人]
N當物+V不及+C	非使役	指N當	특징 또는 속성	[+述物]
N受人+V不及+C	使役	指N受	결과상태	[+述人]
N受物+V及+C	使役	指N受	결과상태	[+述物]
N+V+C		指V	시간, 범위, 빈도, 강도, 심도, 세밀도, 난이도, 정확도, 선명도, 안정도	[+述行]
N屬+V不及+C	使役	指N屬	결과상태	[+述人]
N處所+V不及+C	非使役 또는 使役	指N處所	특징 또는 결과상태	[+述物]
N工具+V不及+C	使役	指N工具	결과상태	[+述物]

‘得’자보어 구문은 내부의미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미지향 분석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본고는 주로 보어의 ‘單指’(하나의 성분을 지향함)현상만 분석하였고 ‘複指’(두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성분을 지향함)현상은 논의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그리고 의미지향類별로 분석할 때 보어가 구체적으로 설명, 묘사, 또는 평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더 세부적이고 전면적인 고찰은 다음기회에 논의하고자 한다.

<參考文獻>

- 北京語言學院語言教學研究所, 1992, 《現代漢語補語研究資料》, 北京語言學院出版社.
- 陸儉明, 沈陽, 2004, 《漢語和漢語研究十五講》, 北京大學出版社.

- 呂叔湘, 1999,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 馬慶株, 1988, 《語法研究入門》, 商務印書館.
- 張國憲, 2006, 《現代漢語形容詞功能與認知研究》, 商務印書館.
- 張志公等, 1956, 《語法和語法教學—介紹“暫擬漢語教學語法系統”》, 北京人民教育出版社
- 鄭貴友, 2000, 《現代漢語狀位形容詞的『系』研究》, 華中師範大學出版社.
- 姜春華, 2006, <帶“得”字的狀態補語的語義語用分析>, 《中國語文學論集》, 第36號.
- 歐齊, 1983, <用助詞“得”連接的補語所表達的意義>, 《漢語學習》, 第4期.
- 金允經, 2001, <현대 중국어 “得”자 構文 연구>, 《中國語文學論集》, 第23號.
- 金惠慶, 2009, <현대 중국어 ‘V-得 사역결과보어’ 구문 연구>, 《中國語文學論集》, 第56號.
- 宋玉柱, 1979, <論帶“得”兼語式>, 《徐州師範學院學報》, 第1期.
- 李臨定, 1963, <帶“得”字的補語句>, 《中國語文》, 第5期.
- 王還, 1979, <漢語結果補語的壹些特點>, 《語言教學與研究》, 第2期.
- 張豫峰, 2001, <“得”字補語的語義指向>, 《山西師大學報》, 第29卷 第1期.

<中文提要>

本文以現代漢語雙音節形容詞做補語的“得”字句為研究對象，對這種句式的語義結構進行了觀察，重點分析了雙音詞形容詞充當的補語在句中的語義指向，同時試圖找出充當各種不同語義指向的補語的雙音節形容詞有什麼樣的語義特征。結論如下：

第一，在雙音節形容詞充當補語的“V+得+C”中，補語的語義指向可分為指N施類，指N當事類，指N受類，指V類，其他指向類，其他指向類又重新可下分為指N屬事類，指N工具類，指N處所類三類。

第二，充當以上各類補語的形容詞大致有三種語義特征，即【+述人】、【述物】、【述行】，這些語義特征對它們所充當的補語的語義指向有重要關係。首先最典型的是具有【+述行】語義特征的形容詞充當補語，基本上只指向動詞謂語；具有【+述人】語義特征的形容詞充當補語主要集中在指向施事或當事上，只有少數可以指向受事及屬事；具有【+述物】語義特征的形容詞充當補語主要集中在指向受事上，其次是工具，場所，少數可以指向當事。

第三，當補語指向名詞性成分時，動詞與補語所指向成分的關係是否具有“使役”影響着補語表示的是結果狀態，還是伴隨狀態，還是原有狀態。

주제어 : 형용사보어, 의미지향, 의미구조, 施事, 當事, 受事